

# 증·개축에 따른 도시한옥 공간사용 방식의 변화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

- 서울시 도시한옥의 DK화를 중심으로 -

## A Research on the Change of Spatial Usage though Enlargment and Remodeling of Urban Traditional Residences

- Focused on Dining-Kitchen conversion of seoul Urban Traditional Residences -

**Author** 김석우 Kim, Seok-Woo / 정회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환경공학과 석사과정  
구수영 Koo, Soo-Young / 정회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김용범 Kim, Young-Bum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강사, 공학박사  
박용환 Park, Yong-Hwan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Urban house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are a type of habitation that happened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when the modernization of habitation had progressed in 1930s, and also a habitation holding societal traits that had adapted and developed into urbanization together with the native trait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es. Because they keep our style of living and the process of change just as they were, it is important work to shed light on and keep a record of it.

So, this thesis arranges the contents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living, and may try to reason by analogy the changing style of residents' living through the change of space composition and the way of space usage for the urban house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that were changed by extension and remodeling of residents. As the concrete matters, it is to grasp the physical and spatial change of urban house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in accordance with extension and remodeling, and to analyze in which part and how they had been changing for the spatial composition of urban house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ving style, and especially the change toward a stand-up type of k stand-and the following traits and factors of the change toward Dining-Kitchen.

The kitchen changed toward Dining-Kitchen shows some typical discrepancie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kitchen as like a case of changing toward Dining-Kitchen from the existing location, a case of extending into the rear side of kitchen, a case of switching of location between kitchen and the inner room, and a case of changing toward Dining-Kitchen from the location of a room across from the main living room. As kitchen changed toward Dining-Kitchen like these, it shows that the connecting trace into the inner room came out, each room came to show a bit clearer function but grow smaller relation with the threshing ground, and also the function of the threshing ground came reduced.

**Keywords** 도시한옥, DK화, 생활실태  
Urban Traditional Residence, Dining-Kitchen, Actual Living States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도시주거의 한 유형으로서, 도시한옥에 대한 현재 상황만을 판단하기 보다는 그 변화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도시한옥의 변화에 관

한 요인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한옥에 관한 동향이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도시주거에 대한 현상의 담론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도시한옥은 1930년대 주거 근대화가 진척되는 과도기

적 시기에 발생한 주거유형으로서, 전통한옥 고유의 특성과 도시화에 적응·발달된 사회적 특성을 함께 지닌 주거이다. 도시한옥이 개발정책의 일환으로든, 거주자의 생활양식의 변화로든 점차 현대 도시에서 사라져 가는 실정이지만, 분명 우리의 생활양식과 그 변화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명하고 기록해 두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고는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시한옥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현 거주자들의 증·개축에 의해 달라진 도시한옥의 공간구성 변화와 공간사용 방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거주자들의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평면상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거 내의 공간구성이 거주자의 생활행위에 대응한 소프트웨어적인 변화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핵가족화 되면서 서구양식의 유입으로 입식화 되고 의자나 침대의 가구 사용과 사생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로 변화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 특성을 통해 지속된 주거 근대화의 일면으로서, 도시한옥과 현대 도시주거와의 공간구조 상의 연계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증·개축에 따른 도시한옥의 물리적,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도시한옥의 공간구성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특히, 부엌의 입식화 혹은 DK화가 되어가는 변화 특성과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고에서 고찰하는 도시한옥의 변화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서울에 지어진 도시한옥의 증·개축 사항과 공간적 변화로 한정하였다. 서울의 '도시형 한옥' 밀집지역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를 대상으로, 선행조사된 106호를 예비 고찰하고 본 조사 51호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민속자료나 문화재로 등록된 일부 사대부 집의 한옥은 제외하였다. 또한, 도시한옥의 구조양식과 의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변화의 고찰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다른 관점의 논고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수집의 방법은 현존하는 도시한옥에 대한 현장실측과 거주자와의 인터뷰 및 관찰조사이다. 인터뷰의 내용은 주택 및 거주자의 일반사항과 가족관계, 주생활행위로 취침, 식사, 접객, 가족 단란의 실을 통하여 증·개축되는 주생활 요인을 파악하였다. 현장 실측을 통해 조사 당시의 평면을 작성하고, 거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행위와 그에 따른 공간사용의 실태를 기록하였다. 현 거주자의 입주 전에 발생한

증·개축 사항은 거주환경의 변화, 증·개축에 의한 구조 및 마감재의 변화에 대한 관찰조사를 통해 유추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도시한옥의 사례는 건설 당시의 공간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주자가 밝히는 증·개축 내용과 관찰조사에 의해 판단된 현황을 바탕으로 건설 당시의 평면 구조를 유추 하였는데, 증·개축의 내용은 주택의 규모와 경제적인 능력에 비추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설 당시의 원형과 공간적 특성, 증·개축 사항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도시한옥의 증·개축에 의한 공간변화와 요인에 관한 분석은 그 시간적 범위를 1950년대에서부터 2000년 사이의 변화로 한정하는데, 이것은 도시한옥이 공급된 이래로 이 기간 동안 증·개축 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공간적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은 주거 근대화의 측면에서, 도시화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주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 1.3. 연구의 방법

도시한옥 주거공간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도시한옥에 대한 실측조사, 가구조사, 생활행위 조사, 주거용 연료 및 방식의 변화에 관한 조사, 주택의 증·개축 현황에 관한 조사, 변화에 관련된 요인조사(면담) 등을 실시하고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2) 실태조사한 도시한옥의 건설당시 원형평면을 중심으로 증·개축과 생활행위에 따른 주거 공간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모식화 하여 공간구성을 파악하였다.

(3) 작성된 모식도를 통해 도시한옥의 공간구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증·개축에 따른 주거공간과 주생활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거주자들의 공간사용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2. 도시한옥의 일반사항

### 2.1. 도시한옥의 선행조사

#### (1) 주택의 일반사항

도시한옥에 대하여 1991년도와 1994년도에 선행 조사된 106호를 고찰하여 1991년 58호, 1994년 48호의 조사된 도시한옥 자료<sup>1)</sup>를 통해 평면도와 거주자의 일반사항, 증개축 사항을 정리하였다.

도시한옥 건축면적의 분포로 35~50㎡가 가장 많고 50~56㎡, 65~80㎡가 대부분이며 평균 57㎡로 나타난다.

1) 출처: 한양대학교 건축계획연구소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논문은 없음

<표 1> 조사대상 개요

조사대상 지역	선행조사		비고	
	1991	1994		
노원구	1		1	상계동
도봉구	3		3	미아동
동대문	10	10	20	용두동, 제기동, 휘경동, 신설동, 전농동
동작구	4		4	흑석동
마포구	2	3	7	신수동, 아현동, 노고산동, 신공덕동
서대문구	5	2	7	북아현동, 냉천동
성동구	5		5	도선동, 상왕십리, 성수동, 행당동
성북구	13	7	20	길음동, 보문동, 삼선동, 동선동, 성북동, 안암동, 정릉동, 종암동
영등포	1		1	신길동
용산구		1	1	원효동
종로구	12	24	36	가회동, 삼청동, 재동, 계동, 내수동, 명륜동, 숭인동, 익선동, 안국동, 창신동, 채부동, 효자동
중구	2	1	3	만리동, 신당동
계	58	48	106	

또한 최소면적으로 29.75㎡로 성북구 삼성동이 가장 작으며 최대로 286㎡로 가회동의 '口'자형과 'ㄷ'자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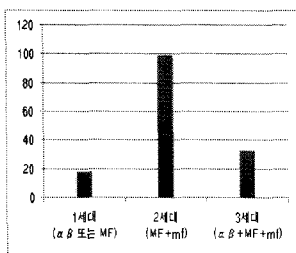
도시한옥 지역별 평균 건축면적은 가회동의 '口'자형의 대규모필지로 나타나 있다.

(2) 거주자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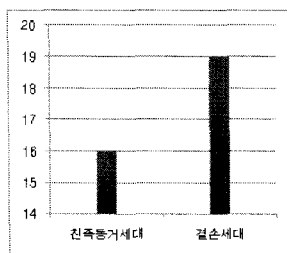
도시한옥거주자의 평균거주기간은 16.75년으로 5년 이하 거주자와 10년~20년 사이에 거주한 거주자들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년 이상 장기거주자들은 제기동과 보문동에 분포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주주기와 비교해 보면 거주기간이 긴 세대가 많음을 나타냈다.

도시한옥 거주자의 절반이상이 한옥의 생활을 선호하거나 한옥에서의 생활이 익숙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 즉 확장 및 축소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는 7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형과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세대로 구성된 2세대(MF+mf)가 조사대상 중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가족형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αβ+MF+mf)는 2세대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친족동거세대는 16가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결손세대는 19가구에 이르렀다.



<그림 1> 가족형1



<그림 2> 가족형2

2.2. 도시한옥 본조사

(1) 주택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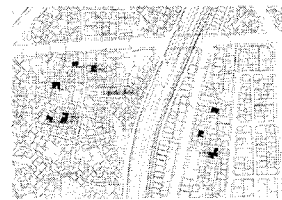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그림 3> 북아현동 조사대상지



<그림 4> 보문동 조사대상지



<그림 5> 제기동 조사대상지



<그림 6> 안암동 조사대상지

조사 대상지역 중에서 가장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지역 중, 북아현 3동은 현재 도시한옥이 가장 많이 밀집하여 남아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이며, 비교적 다양한 규모의 도시한옥이 존재한다. 그리고 보문동은 거의 동일한 규모의 도시한옥이 대단위 블록으로 남아 있으나 2010년에 이곳은 재개발 될 예정이다.

도시한옥의 중·개축에 따른 주거공간과 주생활 공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택 일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지역 중 도시한옥의 분포는 동대문(제기동), 서대문구(북아현동), 성북구(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종로구(숭인동, 익선동)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북아현동이 21호로 가장 많았다.

안암동은 도심부의 소형 도시한옥의 분포로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북아현동과 보문동, 제기동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균일한 필지로 나타난다.

<표 2> 조사대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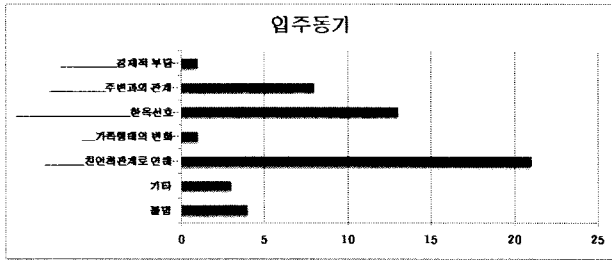
조사대상 지역	본조사 2009	비고
동대문	5	제기동(1동1호, 2동 4호)
마포구	2	아현동(2동 2호)
서대문구	21	북아현동(1동 5호, 3동 16호)
성북구	17	보문동(5호), 동선동(3호), 안암동(9호)
종로구	6	숭인동(5호), 익선동(1호)
계	51	

(2) 거주자의 일반사항

도시한옥거주자의 평균거주기간은 12.35년으로 1990년대 선행 조사된 결과와 같은 5년 이하 거주자와 10년~20년 사이에 거주한 거주자들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년 이상 장기거주자들은 제기동과 보문동에 분포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주주기와 비교해 보면 거주기간

이 긴 세대가 많음을 나타냈다.

입주동기로는 친인척 관계로 인해 살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림 7> 입주동기

### 3. 도시한옥의 증·개축 특성

#### 3.1. 실 면적의 확장

##### (1) 마당의 공간 활용

1930년대부터 건설된 도시 한옥은 큰 변화 없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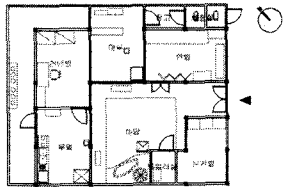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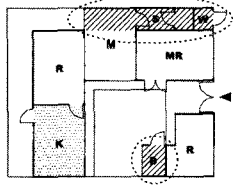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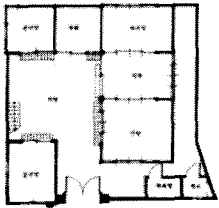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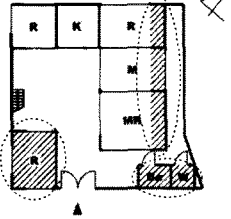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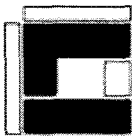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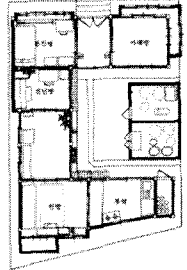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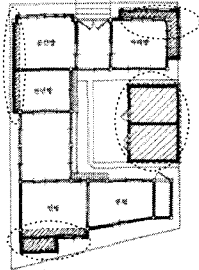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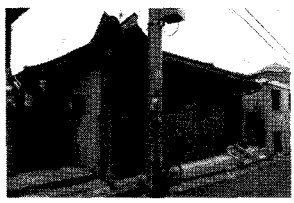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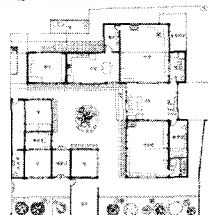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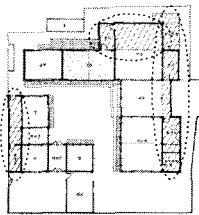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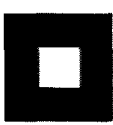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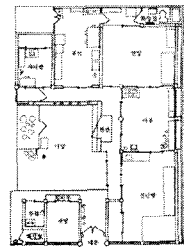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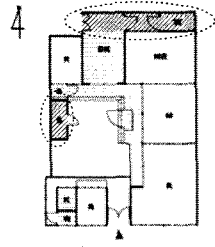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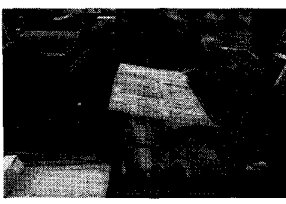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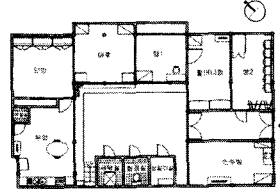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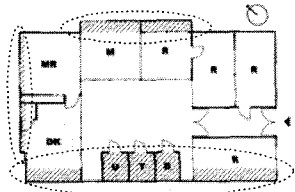
되어 오다가 광복 이후 195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변화가 보이는 곳은 안마당의 창고 부분이다. 1945년부터 무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50년대에 연탄아궁이가 등장하면서 도시한옥에는 연탄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마당의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 창고를 증축해서 사용했다. 창고의 증축으로 인해 안마당의 내향적 성격이 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택의 구조가 중정식의 '口'자형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50년대부터 1975년 정도까지는 구성상의 변화보다는 단순히 공간의 실 면적을 늘리는 증개축 행위가 이루어진다.

##### (2) 대지경계선까지의 확장

건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남아있는 공간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도시한옥의 구조와 필지의 형태상 건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많은 공간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하게 된다. 이 경우 증축하는 장소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진다. 마루 후면부가 증축되는 경우, 주로 안방과 마루, 건넌방의 실 면적을

<표 3> 도시한옥의 증개축 특성

유형	모식도	조사년도-순번 구 - 번지	실측평면	평면(증·개축)
A	 • 마당에 광(창고)을 증축 - 수세식 화장실, 보일러실 증축	91 - 19 마포구 34-23		
		91 - 20 마포구 614-15		
B	 • 마루 후면부 증축 - 건물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공간확보 - 안방, 마루, 건넌방의 실 면적 증가	94 - 26 동대문구 129-297		
		94 - 29 종로구 31-28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엌 후면부 증축</li> <li>부엌의 부속공간(찬간, 창고) / 화장실 증축</li> <li>부엌과 안방 간의 동선 발생, DK화를 위한 공간 확보</li> </ul>	91 - 28 성동구 656-80		
		94 - 7 중구 388-5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루, 부엌 후면부 모두 증축</li> </ul>	91 - 36 성북구 30		
		91 - 48 종로구 104-3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식화된 부엌(DK)를 중심으로 단위공간 간의 상호관계가 변화 (마당)</li> </ul>	91 - 31 성북구 489-45		
		91 - 38 성북구 119		

• MR :안방 R :방 M :마루 Y :마당 W :수세식 화장실 S :창고 B :보일러실  
L :거실 K :입식부엌 DK :입식 식사실 및 부엌 etc :기타실 ▲ :출입구 ○ :증축부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방이 좁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엌 후면 부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엌에 필요한 부속 공간을 확보하거나 안방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이 위함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실 면적을 확장하려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부엌 후면 부를 증축하게 되면서 부엌과 안방 간의 동선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엌이 입식이 되는데 있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전통적인 부엌의 방식을 탈피해 DK화가 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3.2. 부엌의 입식화

1975년 경 이전까지는 단순히 실 면적을 확장시키기 위한 증개축 이었다면, 이후 약 10년간은 공간 구성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새로운 구조의 도시 한옥의 증개축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특히 난방과 취사연료가 석유, LPG 가스 등으로 또 다시 바뀌게 되면서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가장 먼저 부엌이 입식화 되고 부엌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부엌 설비가 근대화되면서,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는데, 이전에 부엌에서 담당하던 난방 기능이 분리되면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결과 연탄아궁이로 인해 생겼던 부엌 바닥과 안방 바닥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밖을 향해 있었던 부엌이 내실화될 수 있게 되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했던 부엌이 집 안에 속하게 된 것이다. 부엌이 집에 속하게 되면서, 부엌 설비도 가구처럼 인식되기 시작하고, 부엌 설비의 근대화는 부엌의 입식화로 이어지게 했다. 그 결과 아궁이를 통해 밥을 짓고, 난방을 하던 재래식 부엌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 3.3. DK화

부엌의 DK화는 부엌실의 증축으로 인한 확장과 부엌 입식화에 따른 부엌 공간사용 효율이 높아지면서 식사공간을 입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루어 졌다.

다시 말해, 기존의 부엌 후면을 증축해 공간 확보를 하고, 확장된 공간을 통해 부엌과 마당의 연결은 그대로 연결하면서, 동시에 안방으로 출입이 가능케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부엌이 가졌던 평면적 나열방식의 물품 보관 방식이 설비의 발전으로 수직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작업공간의 확보로 이어져 갔다. 이는 가사 노동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하고, 부엌을 안방으로부터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부엌의 DK화가 이루어졌다.<sup>2)</sup>

## 4. DK화에 의한 공간사용 방식의 변화

도시 한옥은 앞서 말했듯, 1975년부터 1985년 사이 증개축을 통해 기존의 재래식부엌(K) 부분이 부엌의 입식화(DK)가 되었다. 그리고 부엌이 입식화 되는 과정은 부엌의 위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

### 4.1. DK화의 발생과정

2) 김정근, 서울시내 개량한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pp.5-44

부엌의 입식화 되는 과정 중 첫 번째로 원래 'K' 자리에서 장소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DK'로 변한다. 두 번째로는 부엌 측면에 증축된 공간까지 부엌이 확장되어 'DK'가 된다. 세 번째로 부엌이 건넌방 위치로 이동하여 'DK'가 되는 유형과 마지막으로 안방과 부엌공간이 서로 바뀌면서 'DK'되는 유형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 (1) 기존의 위치에서 DK화 (K→DK)

증·개축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원래 부엌 자리 그대로 부엌이 위치하여 입식화한 유형이다. 특징으로는 부엌이 입식화가 되면서 안방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부엌과 마당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져 간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A는 출입구가 서쪽에 위치하는 동남향 집으로 'ㄱ'자형 집이다. 원형의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엌이 입식화 되었으며 마루와 화장실 또한 현대의 생활에 맞게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엌 뒤쪽과 안방마루 뒤쪽 그리고 현관 정면부분 모두 대지 경계선 까지 증축되어 공간을 확장시켜 생활하고 있다. 모든 실의 출입은 마당에서 마루로 통하게 되어있다.

#### (2) 부엌 후면으로의 증축 (K+a→DK)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부엌의 후면부가 대지 경계선 까지 증축이 되면서 입식화 하는 유형이다.

특징으로서는 부엌 후면부에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부엌과 통합되어 입식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기존의 부엌 위치에서 'DK'화가 일어나는 것은 부엌이 아직 마당과 연결되고 있으면서도 안방과 새로운 동선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B는 출입구가 남동쪽에 있는 남서향의 집으로 원형의 형태는 'ㄷ'자형 이었으나 현재는 'ㄱ'자 모양을 하고 있다. 예전의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부엌과 마루, 건넌방, 그리고 할머니방 옆쪽은 전부터 있었던 작은 대청부분이 개축되어 현대에 맞게 생활하고 있다. 마당은 화장실과 세탁실, 보일러실을 증축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부엌과 안방 후면, 마루와 건넌방 후면 손주방과 부엌 오른편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의 출입은 마당에서 모든 실의 출입이 가능하다.

#### (3) 부엌과 안방의 위치변경 (MR→DK)

부엌과 안방의 위치가 서로 변경 되면서 원래 안방이었던 자리에 부엌이 입식화 되는 유형이다.

부엌이 안방자리에서 입식화 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마당과의 연결고리가 소실되고 마루와 직접 연결되게 된다는 점이다. 부엌이 안방의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마루와 안방을 연결하는 공간구성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C는 동쪽으로 출입구가 나와 있으며

<표 4> 증개축에 따른 도시한옥 공간구성의 변화

유형 (DK)	배치도 / 실내사진	모식도	실측평면	평면(증·개축)
A	DK화 - 안방과의 연결고리 생성, 마당과의 연결고리 약화			
B	부엌이 인접한 실과 통합되어 DK화			
C	안방과 부엌의 위치가 변경되는 사례 - 부엌이 안방 위치에서 입식화(DK화) 되면서 마루와 연결 - 마당과의 연결고리는 소실			
D	부엌이 건넌방 위치에서 입식화 하는 사례 - 부엌과 마루의 연결 - 마당과의 연결고리 약화			

\* MR:안방 R:방 M:마루 Y:마당 W:수세식 화장실 S:창고 B:보일러실 L:거실 K:입식부엌 DK:입식 식사실 및 부엌 etc:기타실 ▲:출입구

정남향집이다. 'ㄷ'자형에서 'ㄱ' 형태로 바뀌었다. 안방, 부엌, 마루, 건넌방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많은 개축된 상태를 볼 수 있다. 보일러실과 화장실이 마당에 증축되었으며 현재의 안방과 부엌 쪽에 대지경계선까지 증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실의 출입은 마당을 통하게 되어 있다.

(4) 건넌방 위치에서 DK화 (R→DK)

부엌이 건넌방 위치에서 입식화 하는 형태로 부엌과 마루가 연결되고 마당과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D는 남쪽으로 출입하는 서향집으로 원형은 'ㄷ' 자형 집이었으나 현재는 'ㄱ' 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부엌, 안방, 건넌방의 구조로 되어있는 집으로 대

청마루가 방으로 완전히 개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엌과 안방부분도 개축되어 사용하고 있다. 화장실과 보일러실이 증축되었고, 각 실의 출입은 마당을 통해서 한다.

#### 4.2. 공간사용 방식의 변화

부엌의 입식화와 부엌공간의 확장으로 인해서 안방과의 연결 동선이 새로 생겼다. 이로 인해 기존에 안방에서 마당을 거쳐 부엌으로 출입해야 했던 동선이 안방에서 바로 부엌으로 출입이 가능해져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또한 조리만 가능했던 부엌에서 조리과 식사와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안방이나 마루에서 식사를 하던 기존의 공간 사용 방식은 줄어들고, 대신 공간이 가지는 독립된 기능이 분화되면서, 실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입식화 된 부엌과 증축으로 생겨난 실내 화장실로 인해 생활의 중심이 점점 실내로 이동하면서 부엌과 마당과의 연결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마당에서 이루어지던 생활 작업들이 입식화 된 부엌으로 이동하면서 마당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 5. 결론

1975년 경 부터 일어나는 DK화는 도시한옥 공간구성을 재편하는 핵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 면적의 확장기에 부엌 후면부의 증개축 행위는 도시한옥의 공간구성이 재편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증개축에 따른 도시한옥 공간사용 방식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난방 방식의 변화로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마당에 창고가 증축되고 이후 실의 면적 확장을 위해 실 후면 부로 대지경계선 까지 증축이 된다.

(2) 증축된 부엌은 부엌설비의 근대화로 입식화 되고 부엌과 마당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져 간다.

(3) 식사 공간이 입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DK화가 이루어진다.

(4) DK화 된 부엌은 부엌의 위치에 따라 유형의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의 위치에서 DK화 된 경우와 부엌 후면으로 증축된 경우, 부엌과 안방의 위치변경이 된 경우, 건넌방 위치에서 DK화된 경우를 볼 수 있다.

(5) 부엌이 DK화 됨으로써 안방과의 연결동선이 생겨나고 각 실들이 좀 더 뚜렷한 기능을 타나내면서 마당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마당의 기능 또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 참고문헌

1. 김선재, 한국 근대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9
2. 김은하, 도시형 한옥의 증개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5
3. 김정곤, 서울시내 개량한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4. 송인호, 都市型韓屋의 類型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0
5. 이미혜, 한국 현대 부엌가구의 변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6. 문홍길, 개화기 이후 한국 전래 주거 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2권 2호, 1982
7. 이순희, 주거용 연료의 전환에 의한 주거공간 구성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7호, 1997
8. 이순희, 근대 도시주거 공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9호, 1997

[논문접수 : 2009. 07. 31]  
 [1차 심사 : 2009. 08. 21]  
 [2차 심사 : 2009. 09. 03]  
 [게재확정 : 2009. 10. 09]

참조 : 본 연구의 도면에서 사용된 INDEX

<증개축 및 개실 상황>		<개실명>	
□	개실	MR	안방
▨	증축	R	방
▤	신축	M	마루
—	출입동선	L	가실
▲	출입구	K	부엌
		DK	입식 식사실 및 부엌
		T	화장실
		E	창고
		B	보일러실